

# 최근 청소년 SF의 자기돌봄 서사 연구

## - 다중우주적 상상을 중심으로\*

최배은\*\*

1. 서론
2. '부정적 자아'와의 대결을 통한 자기통찰
3. '미래의 나'와의 협력을 통한 자기포용
4. 결론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최근 청소년 SF에서 다중우주적 상상에 기반한 자기돌봄 서사가 증가함에 주목하여 그 양상을 살피고 그 의의와 한계를 고찰하였다.

대상 작품들은 자기를 괴롭히는 생각들에 사로잡힌 여성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들이 또 다른 '나'를 만나며 겪는 자기돌봄 사건을 다루고 있다. 자기돌봄 과정에 이르는 여정은 비슷하지만 '나'와 맺는 관계의 양상은 다르다. <다꾸의 날>과 <붉은 실 끝의 아이들>은 '부정적 자아'와의 대결을 통해 자기를 통찰하게 되고, <너의 우주는 곧 나의 우주>와 <사실은, 단 한 사람이면 되었다>는 '미래의 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와 협력하며 '현재의 나'를 포용할 용기를 갖게 된다. 최근 청소년 소설에서 자기돌봄 서사가 증가하는 이유는 일상의 스몰 트라우마가 청소년들을 압박하

\* 이 논문은 2023년 대중서사학회 가을 정기학술대회 <에코테크네 시대, 한국 SF의 기원과 전개>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며 청소년들이 부정적 자아를 갖게 되는 현실과 관련 있어 보인다. 이때 SF의 다중우주적 상상은 '나'와 '나의 세계'를 내면에 가두지 않고, 다른 개체와 우주로 형상화하여 정적이고 관념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자기돌봄 사건을 흥미진진하고 역동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 또 '나'를 보다 입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상상력을 제공한다.

이러한 작품들은 SF가 기술문명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세계관의 탐구나 미래 사회를 상징하는 장치로서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가 피상적으로 재현되고,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을 환상적 모티프로 해결하여 다중우주적 상상을 과학보다 환상적인 것으로 좁히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최근 청소년 SF를 자기돌봄 서사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하며, SF를 기능적 측면에서 고찰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청소년 SF, 다중우주, 자기돌봄 서사, 여성 청소년, 부정적 자아, 스몰 트라우마)

## 1. 서론

2023년에 개봉한 영화 <오픈하이머>는 2023년 분야별 최다 검색어 5위 안에 들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다.<sup>1)</sup> 이는 현대물리학의 쟁점인 원자폭탄과 양자역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시사한다. 원자폭탄의 아버지 오픈하이머는 미국이 아직 양자역학을 공상으로 여기던 때에 그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전파시켰을 뿐만 아니라, 원자폭탄을 만들어 양자역학의 현실성과 실용성을 입증하였다. 양자역학이 일으킨 또 다른 논란은 다중우

---

1) 구글에서는 1위, 네이버에서는 2위, 다음에서는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주론이다. 이 드넓은 우주에 단 하나의 우주만 있을 리 없다는 생각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으나<sup>2)</sup> 양자역학으로 인해 그것은 신비주의적 사고가 아닌, 과학에 의거한 합리적 사고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하지만 인간이 다중우주를 실제로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로 인해 다중우주론은 학문의 세계보다 SF에서 큰 인기를 끌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최근 청소년 SF에서도 다중우주론을 활용한 작품들이 늘고 있다. 2009년에 <영두의 우연한 현실><sup>3)</sup>이 나오긴 했으나 그 비중이 눈에 띄게 높아진 것은 최근 현상으로 보인다.<sup>4)</sup> 『30세기 소년소녀』<sup>5)</sup>처럼 다른 우주에서 온 악당을 물리쳐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보다 다른 우주에서 온 자기 자신을 마주하며 자기돌봄 서사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영두의 우연한 현실>에서도 주인공 영두가 다른 우주에서 온 영두 자신과 마주하긴 하지만 자기돌봄 서사로 보기는 어렵다. 그 작품에서 영두는 또 다른 자기보다 그를 통해 확인한 다중우주에 더 큰 관심을 보인다. 그래서 영두는 또 다른 자기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 다른 우주로 여행을 떠난다. 다시 말해 이 소설에서 다중우주의 존재는 내가 발 딛고 선 현실이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을 초래하며 어떤 해방감을 느끼게 한다. 이와 같이 ‘나’와 ‘나’가 만나는 이야기라고 해서 꼭 자기돌봄 서사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타라 브랙에 의하면, ‘자기돌봄’이란 “나를 미워하지 않도록, 울게 내버

---

2) 토비아스 휘르터·막스 라우너, 『평행우주라는 미친 생각은 어떻게 상식이 되었는가』, 김희상 역, 알마, 2013.

3) 이현, <영두의 우연한 현실>, 『영두의 우연한 현실』, 사계절, 2009.

4)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서 검색되는 양자역학 관련 국내도서는 총 214권인데 그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103권이 2020년부터 2024년 2월 현재까지 출간된 도서이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최근 양자역학에 대한 관심이 청소년 SF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5) 고희관, 『30세기 소년소녀』, 북트리거, 2023.

려두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살피는 것이다. 그것은 “잠시도 생각이 끊어지지 않는 내 마음이 엉뚱한 곳으로 달아나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즉 자기돌봄은 “나를 괴롭게 하는 생각의 쳇바퀴를 멈추고(멈춤), 순간순간 깨어있으면서 내 마음을 관찰하고(깨어있기, 마음챙김), 진짜 ‘나’를 인식하여(통찰), 마침내 나를 사랑하고 온 세상을 껴안기(포용,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이다.”<sup>6)</sup> 즉 타라 브랙의 자기돌봄은 겉모습이나 타인의 시선보다 자기 내면에 주의를 기울이며 내면의 여러 감정과 생각, 느낌을 돌보는 행위이다.

이런 관점에서 자기돌봄 서사는 어떤 문제 상황이나 타자의 부정적 시선으로 인해 불행감을 느끼는 인물이 그 생각을 멈추고, 자기 마음을 관찰하며 ‘나’를 알고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매우 가치 있으나 그동안 아동청소년문학에서 널리 쓰여 온 서사는 아니다. 그 이유를 추론해보자면, 먼저 아동청소년의 성장 과업에서 타자 및 환경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족, 이웃, 친구, 선생님, 동물, 인형 등 나 아닌 존재와 상호 소통하며 자기 세계를 확장해가는 이야기 비중이 높다. 다음으로 내적 사건인 자기돌봄의 과정을 흥미진진한 서사로 체험하게 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이다. 잘못하면 작품 안에 ‘나’의 목소리만 울려 퍼져서 단조로운 느낌을 줄 수 있고,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태도나 자세를 강조하여 등장인물에 공감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최근 청소년 SF에서 자기돌봄 서사 비중이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그 양상이 주로 다중우주적 상상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탐구는 최근 청소년 문학을 이해하고, 스토리텔링 기법으로서 SF의 기능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6) 타라 브랙, 『자기돌봄』, 이재석 역, 김선경 엮음, 생각정원, 2013, 7쪽.

기존 연구에서 청소년 SF를 대상으로 자기돌봄 서사를 연구한 논문은 찾기 어렵다. 그 이유는 청소년 문학에서 SF와 자기돌봄 서사가 최근에 많이 창작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SF와 돌봄에 대한 연구 또한 주목받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풍부한 성과가 축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청소년 SF에 대한 연구는 아동 SF와 함께 그 기원이나 역사<sup>7)</sup>, 디스토피아<sup>8)</sup>, 포스트휴먼<sup>9)</sup>, 여성주의<sup>10)</sup>, 캐릭터<sup>11)</sup> 등에 대한 관심을 두고 이루어졌다. ‘돌봄’에 대해선 코로나19 이후 주로 정치학과 사회학, 윤리학에서 여러 논의가 이루어졌고, 문학에서도 작품을 돌봄의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다.<sup>12)</sup> 하지만 주로 노인 돌봄, 젠더 수행성 측면에서의 상호돌봄, 가족 돌봄 등에 대한 논의로 자기돌봄이나 심리학적 측면에서의 관심은 드물다. 자기돌봄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김성희의 『염상섭 『취우』의 윤리적 독해』<sup>13)</sup>를 들 수 있다. 김성희는 ‘돌봄’을 비판이론의 전

7) 최애순, 「초창기 SF 아동청소년문학의 전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21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7.

8) 최배은, 「한국 아동청소년 과학소설의 디스토피아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제76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22.

9) 양태영, 「2010년대 한국 어린이·청소년 SF 연구 : 포스트휴먼적 주인공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10) 김유진, 「최근 SF 어린이청소년문학의 여성주의적 분석」,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22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8; 김짬마, 「포스트휴먼 시대의 과학자-엄마 되기—SF 아동청소년문학에 나타난 모성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5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1.

11) 박성진, 「2010년대 SF 청소년소설 연구 : 이인(異人)·가상생물 캐릭터와 현실 청소년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12) 김건형, 「한국 게이 로맨스 장르의 서사구조 - 남성 청년의 돌봄 친밀성과 게이라는 남성 젠더의 창안」, 『대중서사연구』 제28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22; 김은정, 「조경란 치매 서사에 나타난 이야기 정체성」, 『한국문학논총』 제85집, 한국문학회, 2020; 엄미옥, 「고령화사회의 문학—‘치매’를 다룬 소설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4권 1호, 대중서사학회, 2018; 정윤영, 「『프린세스 바리』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돌봄 연구 - ‘확장된 돌봄’으로서의 효과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연구』 제41호,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2023.

통에서 해석하여 ‘자기돌봄’을 주체의 구성으로 보고, 그 주체가 다시 타인을 돌보게 되는 과정을 염상섭의 『취우』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그 논문은 ‘자기돌봄’이라는 시각으로 작품 및 작가를 새롭게 해석하며 전쟁기 작품을 이데올로기가 아닌 돌봄 윤리로 해석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본고와 연구 대상이 매우 다르고, ‘자기돌봄’을 철학적으로 탐구한다는 점에서 본고에서 이루어지는 심리학적 관심과 차이가 있다. 또 윤혜정의 「목소리의 공명을 통한 여성서사의 확장 - 최은영의 『밝은 밤』을 중심으로」<sup>14)</sup>는 최은영 소설이 가부장 제도 하에서 억압되었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표출시켜 여성 간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한 서사라고 하여, 심리학적 측면에서 돌봄을 주목한 의의가 있지만 역시 본고의 연구 대상과 거리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고는 최근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청소년 SF와 돌봄 서사 연구에 대한 새로운 연구 주제 및 방법을 제안한다는 의의가 있다.

요컨대 이 연구는 최근 청소년 SF 중 다중우주적 상상에 기반한 자기돌봄 서사의 양상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여, 그 의의와 한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대상 작품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출간된 다중우주적 상상에 기반한 청소년 SF 중 자기돌봄 서사가 분명히 드러난 작품이다.<sup>15)</sup> 즉 여러 가지 이유로 불행감을 느끼는 청소년들이 다른 우주에서 온 ‘나’를 만나 자기를 통찰하고 포용하게 되는 이야기로서 문이소의 『다꾸의 날』, 전삼혜

13) 김성희, 「염상섭 『취우』의 윤리적 독해」,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98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23.

14) 윤혜정, 「목소리의 공명을 통한 여성서사의 확장 - 최은영의 『밝은 밤』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75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22.

15) 이는 필자가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청소년SF연구공동체플러스알파에서 한 해 동안 출간된 어린이청소년SF를 조사하여 우수작을 추천하는 사업을 수행하며 파악한 경향이다.

의 『붉은 실 끝의 아이들』, 하유지의 『너의 우주는 곧 나의 우주』, 정해연의 『사실은, 단 한 사람이면 되었다』<sup>16)</sup>이다. 이 작품들은 또 다른 ‘나’가 주인공의 조력자나 적대자로 기능하며 중심사건이 전개되므로 그들의 관계 및 중심갈등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타라 블랙의 자기돌봄 과정과 벡 애럴의 스몰 트라우마 개념을 참고하여 작품의 의미를 해석할 것이다. 스몰 트라우마는 “주요 생애사건과 마찬가지로 삶의 일정 단계에서 발생하며 처음 심리적 충격을 받은 뒤로 경미한 수준의 트라우마가 오랜 기간에 걸쳐 강화될 때 생성된다. 이러한 강화 작용은 결국 특정한 패턴을 형성하는데 정신 건강 패턴일 수도 있고 혹은 그 결과로 인한 행동 패턴일 수도 있다.”<sup>17)</sup> 이 작품의 주인공들은 전쟁, 재난, 강간 등으로 인한 빅 트라우마보다 스몰 트라우마로 고통 받으므로 오늘날 청소년들의 삶과 연관지어 해석할 때에도 유용한 이론으로 보인다. 본론은 주인공이 또 다른 ‘나’와 맺는 관계에 따라 전개한다.

## 2. ‘부정적 자아’와의 대결을 통한 자기통찰

『다꾸의 날』과 『붉은 실 끝의 아이들』에선 여러 평행우주에서 온, 서로 다른 모습을 한 ‘나’가 등장한다. 『다꾸의 날』에선 백금발, 땡기머리, 왕언니, 댄서 형님, 킬러가, 『붉은 실 끝의 아이들』에선 베이, 룬, 토토, 렌, 진이 주인공에게 온다. 두 작품에서는 여러 평행우주의 ‘나’를 <영두의 우연한 현실>에서의 영두처럼 똑같은 모습과 이름을 가진 존재로 상상하지 않는

16) 대상 작품의 자세한 서지사항은 “참고문헌 1. 자료”에 밝혀 놓았다.

17) 벡 애럴, 『삶의 면역을 기르는 자기돌봄의 심리학 스몰 트라우마』, 박슬라 역, 김현수 감수, 갤러온, 2023, 26쪽.

다. 『다꾸의 날』의 댄서 형님처럼 성별이 다를 수 있고, 『붉은 실 끝의 아이들』의 진처럼 인간이 아닌 네 발 동물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인공 ‘나’에게 어떤 존재를 죽이라는 과업을 제시한다. 이렇게 비슷한 상황으로 시작한 두 작품은 중심갈등의 차이에 따라 다른 전개를 보인다.

『다꾸의 날』에서 주인공 신유민이 죽여할 존재는 자기와 똑같은 모습을 한 또 다른 나, ‘킬러’이다. 킬러는 다른 우주들에서 살아가는 ‘나’들을 죽여서 ‘나’의 존재 자체를 위협한다. 그런데 킬러는 이 작품에 등장하는 ‘나’들과 이질적 측면이 있다.

“우리는 같은 ‘나’인 동시에 다른 개체들이야. 같은 신유민이지만 나이도, 살아온 세계도, 심지어 성별도 다르지. 그런데 킬러와 난 완전히 똑같잖니. 나이도 비슷한 걸로 봐선 얼마 전에 그리 뻘을 거다.”  
“말도 안 돼! 저 흉악한 게 나한테서 나왔다고요?”<sup>18)</sup>

위의 인용에서 왕언니가 말한 것처럼 킬러는 평행우주에서 탄생한 다른 개체로서의 ‘나’가 아니라, 주인공 신유민에게서 파생된 존재이다. 즉 킬러는 주인공의 ‘부정적 자아’로서 그 킬러를 없앨 수 있는 자도 주인공뿐이다.

이렇게 자신을 혐오하고 괴롭히는 자기와의 갈등 이야기는 너무 흔해서 새롭지 않다. 하지만 이 작품은 그 약점을 다중우주적 상상을 통해 보완하고 있다. 평행우주에서 온 다른 개체로서의 ‘나’들을 등장시킴으로써 여러 인물을 등장시킨 효과가 있고, 엄밀히 말해 심리적 현상인 킬러를 다중우주의 ‘나’들처럼 물리적 실체로 받아들이게 한다. 또 주인공 신유민이 부정적 자아와 대결하는 심리적 사건을 역동적인 모험서사로 만든다.

타라 브랙에 의하면 자기돌봄은 ‘나’를 괴롭히는 생각의 쳇바퀴를 멈추

18) 문이소, 『다꾸의 날』, 씨드북, 2023, 58쪽.



는 데로부터 시작한다. 『다꾸의 날』에서 고3 신유민은 자존감에 심각한 타격을 받은 생일날, 다중우주로부터 ‘나’들이 방문하며 부정적인 생각의 쳇바퀴를 멈추게 된다. 이 소설에서 그것은 주인공이 존재하는 세계의 시간을 멈추는 것으로 형상화된다. 다중우주의 ‘나’들이 이동하는 수단인, 검은 공처럼 생긴 우주수가 광화문 하늘에 나타나고부터 자연적(물리적) 시간은 멈추고, 신유민들의 시간만 흐르며 내면 모험이 전개된다. 주인공은 다른 ‘나’들과 금세 애착관계를 형성하여 킬러에게 쫓기면서도 망원시장에서 함께 닭꼬치를 먹는 등 즐거운 추억을 쌓는다. 하지만 결국 다중우주의 ‘나’들이 죽임을 당하고, 주인공마저 킬러의 칼에 맞았을 때 더 깊은 내면 여행이 시작된다.

킬러의 칼에 맞으면 그가 만든 아공간 ‘무심’에 갇히는데, 주인공은 이곳에서 부정적 자아에 굴복한 수많은 ‘자기’를 관찰한다.

대부분의 ‘나’는 아예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를 킬러로 착각해서인지, 아니면 사람을 상대하기 싫어서인지 잘 모르겠다. …(중략)… 아공간 무심은 킬러가 나를 가둔 공간이면서도 내가 지우고 싶어 했던 ‘나’를 버린 공간이었다. 반짝이고 박수받는 모습이 아닌 초라하고 창피해서 영구 삭제하고픈 내 모습을 말이다. 그럼 바닥에는 어떤 ‘나’가 있을까?<sup>19)</sup>

그 결과, 아공간은 주인공 자신이 스스로를 버린 공간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 달리 말하면, 주인공이 살아오면서 쌓아온 스몰 트라우마의 기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무기력한 ‘나’들을 관찰하고 연민을 느끼며 주인공은 바닥까지 내려가서 킬러를 만들어낸 직접적 원인, 즉 특성화고에 적응하지 못해 우울하고 무기력했던 자신을 발견한다. 프로이트의 무의식

---

19) 위의 책, 84쪽.

을 상징하는 아공간에서 주인공은 외면했던 자기의 스물 트라우마를 관찰하고 통찰하며 자기돌봄 과정을 수행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 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중우주의 ‘나’들 덕분에 자기 무의식을 탐험하며 자기를 수용할 줄 알게 된 주인공은 킬러를 다른 우주로 보내지 않고 킬러의 아공간, 즉 자기 자신의 무의식에 품는다.

『붉은 실 끝의 아이들』에서 주인공은 5년째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17세 유리이다. 그가 아픈 이유는 신유민과 달리 예지몽을 꿀 수 있는 특별한 능력 때문이다. 유리는 예지몽에서 알게 된 사고나 재난을 막지 못할까봐 불안해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죄책감에 괴로워한다.

어느 날 유리를 찾아온 다른 우주의 또 다른 ‘나’들도 모두 능력자이다. 베이는 여러 평행우주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관측할 수 있는 ‘관측자’이고, 룬은 시간을 닷새까지 과거로 돌릴 수 있는 ‘인과율자’이다. 토토는 중력을 거스릴 수 있는 ‘역중력자’인 동시에 타인에게 자신의 말을 진심이라 믿게 만들 수 있는 ‘설득자’이다. 랜은 두 갈래 선택지에서 언제나 정답을 택할 수 있는 ‘판단자’이고, 진은 신체의 일부를 다른 모습으로 변형할 수 있는 ‘변형자’이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자기 우주에서 사랑하는 존재인 ‘시아’와 자기 우주를 상실한 트라우마가 있다.

이 작품의 중심갈등, 그리고 유리와 다른 우주에서 온 ‘나’들의 관계는 『다꾸의 날』처럼 선명하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이 소설이 붉은 실 설화<sup>20)</sup>를 활용한 운명 비극을 꺾고 있으며, 상징성이 강해서 표층 스토리와 심층 스토리<sup>21)</sup>의 간극이 크기 때문이다.

20) “운명의 붉은 실이란 붉은 색의 실이 사람 간, 특히 연정을 품은 두 남녀 간의 인연을 이어 준다는 중국의 설화와, 여기에서 유래되어 동아시아에서 널리 믿어지고 있는 미신적 문화요소를 가리킨다.” 나무위키(<https://namu.wiki/w/%EC%9A%B4%EB%AA%85%EC%9D%98%20%EB%B6%89%EC%9D%80%20%EC%8B%A4>).

21) “주제와의 거리를 고려하여 스토리를 둘로 구별할 수 있다. 사건의 표면적 모습 우주

먼저 표층 스토리의 갈등은 우리와 평행우주에서 온 다른 ‘나’들 사이에서 찾을 수 있다. ‘나’들은 이 우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아를 죽여야 한다고 하지만, 시아와 친구가 된 우리는 그 말을 거부하고 오히려 ‘나’들로부터 시아를 지켜주게 한다. 따라서 표층에서 우리는 다중우주에서 온 ‘나’들과 대결한다. 그런데 심층 스토리의 갈등은 세상을 구하기 위해 시아를 죽여야 하는가 여부에 대한 내적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시아와 우리는 붉은 실로 이어져 우리가 시아와의 인연을 임의로 끊을 수도 없다. 그러면 시아는 어떤 존재이고, 왜 이 이야기를 자기돌봄 서사로 읽을 수 있는가?

『다꾸의 날』의 킬러처럼, 시아도 다른 우주에서 온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의 우주에 존재했던 인물이다. 그리고 능력자인데, 걱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대리자’, ‘대적자’이다. 바로 그 능력 때문에 세상의 멸망을 초래한다. 이것은 매우 모순된 현상이다. 시아는 악한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돕기 위해 그들의 부탁을 받고 남의 걱정을 대신해 주는데 그로 인해 세상이 멸망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시아를 죽이고, 운명의 쳇바퀴로부터 벗어난다. 우리는 시아를 죽이지 않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쓰지만 그때마다 인과율자인 룬이 시간을 되돌린다. 즉 우리가 시아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의 시간은 더 나아가지 못한다. 이 상황을 자기돌봄을 위한 ‘멈춤’의 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

자기돌봄의 관점에서 이 소설을 볼 때, 시아는 자기 자신과 우리 우주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죽여야 할 존재이다. 작품에서 시아가 ‘나’들이 사랑하는 생명체로 형상화되었지만 그 상징적 의미는 시아가 가진 정신적인 능

---

로 간추린 ‘표층 스토리’와, 내적 의미 맥락까지 포착한 ‘심층 스토리’가 그것이다. …(중략)…주제 층위와 가까운 심층 스토리가 보다 스토리의 본질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최시한, 『스토리텔링, 어떻게 할 것인가』, 문학과지성사, 2018, 101쪽.

력에 있다. 남의 걱정을 대신하여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능력은 언뜻 생각하기엔 남들을 그 걱정으로부터 해방시켜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대리자 자신과 남 모두를 파멸에 이르게 한다.

“각자에게 ‘시아’가 있지. 시아를 죽인 지구는 살았고, 죽이지 못한 지구는 망했어. 망했다는 건 인간이 살 수 없을 만큼 황폐해졌다는 이야기도 되고,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서 모두가 로봇처럼 지배에 따르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해. 인간이 자유의지를 잃는 상태를 대체로 망했다고 설명하고 있어.”<sup>22)</sup>

위에서 관측자 베이가 일러주는 것처럼 자기가 해야 할 걱정을 남이 대신 해결해주면 인간은 자유의지<sup>23)</sup>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시아는 『다꾸의 날』의 킬러와 달리, ‘나’를 돕는 존재인 것 같지만, 역시 ‘나’에게 해로운 존재이다. 나를 사랑하고 내가 욕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문제를 통찰하기가 어려워 킬러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즉 시아는 누군가 나의 걱정을 대신 해결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의 욕망을 상징함과 동시에 그 욕망이 만들어낸 허상으로 보인다. 『붉은 실 끝의 아이들』에선 유리의 걱정과 불안이 만들어낸 유리의 부정적 자아로 해석할 수 있다. 분명한 건 그 시아를 없애야 온전한 ‘나’로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주인공 유리는 다중우주의 또 다른 ‘나’들 덕분에 시아의 위험성을 알게 되고, 시아로부터 벗어난다.

일자 샌드에 따르면 인간의 대표적인 감정 중 걱정이나 불안은 슬픔과

22) 전삼혜, 『붉은 실 끝의 아이들』, 퍼플레인, 2022, 48쪽.

23) ‘자유의지(free will)’는 심리학적 용어로 “어떤 외부의 힘이나 압력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의 내적 동기와 판단에 따라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선택 및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의지”를 말한다. 양돈규, 『심리학사전』, 박영사, 2017, 492쪽.

달리, 인간이 벗어나야 할 감정이 아니라 감당해야 할 감정이다. 걱정이나 불안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만, 실제적인 위협으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주는 심리적 기제이기 때문이다.<sup>24)</sup> 『붉은 실 끝의 아이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흥미로운 사건으로 전달하고 있다. 곧 인간의 정신적 능력이나 마음을 초능력을 가진 존재로 형상화하여 개성 있는 인물들을 창조하고 다중우주적 상상과 운명 비극적 구조로 새롭고 긴장감 넘치는 사건을 만들었다.

요컨대 두 작품에서 자기돌봄 서사는 자기를 괴롭히는 생각을 멈추고, 부정적 자아를 직면하며 그와의 대결 과정에서 자기를 통찰하게 한다. 이때 다중우주적 상상은 공간을 다양화하고 ‘나’를 다른 개체로 객관화하여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나와의 대결’을 흥미진진한 모험 서사로 만드는 데 일조한다.

### 3. ‘미래의 나’와의 협력을 통한 자기포용

『너의 우주는 곧 나의 우주』와 『사실은, 단 한 사람이면 되었다』에서 평행우주는 공간적이기보다 시간적 의미를 띤다. 그래서 2에서 다룬 두 작품과 달리, 주인공은 그가 사는 우주보다 앞선 시간 차원의 ‘나’ 한 명만 만난다. 그러다 보니, 미래에서 온 ‘나’는 다른 개체로 여겨지기보다 미래의 ‘나’와 동일시된다.

『너의 우주는 곧 나의 우주』의 주인공은 여름과 테리이다. 여름은 15세 여성이고, 테리는 여름보다 50년 앞서 태어난 여성이다. 이 작품의 문제 상황은 삶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초기화되는 것이다. 65세 테리는 음식

---

24) 일자 샌드, 『서툰 마음』, 김유미 역, 다산지식하우스, 2017.

만드는 일을 좋아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테리는 소박하지만 현재의 자기 삶과 인간관계를 사랑하고 만족해한다. 테리는 이대로 삶이 이어져 자기를 돕는 윈터에게 식당을 넘겨주고 죽기를 희망한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삶이 중단되고 과거로 이동한다. 또 다른 '나'인 여름과 테리의 우주가 겹쳐져 여름의 초기화 선택이 테리의 우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 문제로 여름과 테리가 만나 갈등을 빚기도 하지만 이 작품의 중심갈등은 청소년 여성이 삶을 자꾸 초기화하는 내적 갈등에 있다. 오히려 테리는 여름의 갈등을 해결하는 조력자로 기능한다.

여름은 12세에 자기 우주를 초기화할 수 있는 다비드호의 존재를 알고부터 가족, 친구, 성적 문제 등 시련에 부딪칠 때마다 그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돌아간다. 여름의 이러한 욕망과 선택도 『붉은 실 끝의 아이들』에서 걱정을 대신 해결해주는 존재와 마찬가지로 한국 청소년들의 욕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생기면 그 해결 방법을 강구하기보다 아예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바라는 심리 말이다. 하지만 여름이 오랜 세월 동안 15세를 못 벗어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더라도 미처 예기치 못한 다양한 문제와 시련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여름이 새로운 삶의 기회라고 기대한 초기화 버튼은 실은 우리가 시아를 죽일 때까지 벗어날 수 없었던 운명의 쳇바퀴 같은 것이다. 그리고 문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이 문제가 자기 삶을 감당할 수 없는 불행에 빠뜨릴 것 같은 두려움, 또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없으리라는 부정적 생각이 여름이로 하여금 습관적으로 초기화 버튼을 누르게 한 것이다.

이 소설에서 여름이 멈추어야 할 자기에 대한 부정적 생각은 바로 이 막연한 두려움이다. 실제로 나쁜 일을 겪지 않더라도 자기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심리적 기제로 습관화될 수 있음을 보인 것도 이 소설의 큰 장점이다.

다시 말해 이 소설에서 다중우주는 지금 내가 머무는 우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공간으로 상상된다.

도망이 습관이 된 자에게 도전할 용기를 주는 일은 쉽지 않다. 도망치면 칠수록 자기를 더욱 믿을 수 없게 되고, 스스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 자신을 합리화하며 자기 불신에 따른 불안감을 방어하기 때문이다. 이때 여름은 미래의 나, 테리와 대화함으로써 도망을 멈추고 자기 앞에 닥친 어떤 상황이라도 수용할 용기를 갖는다.

“어른이 된다는 건 어때요? 할머니가 되도록 나이 든다는 건?” “나이 든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건 아니야. 슬슬 어른이 돼 볼까, 맘먹을 때 어른이 되는 거지. 결심하더라도 시간은 좀 걸릴 거야.” …(중략)… “테리는 어떤 할머니예요?” …(중략)… “어디 문제는 없나 해서 그렇죠. 다시 물어볼게요. 건강하고 평화로운 할머니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상한 질문이지만 답해 보자면 일단 난, 건강해. 필라테스도 하고 등산도 하고. 움직이는 걸 좋아하거든. 평화라면 정신이나 정서를 말하는 거야? 흔히들 마음이라고 부르는 부분? 그런 쪽이라면 평화도 오케이. 뇌 건강과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없으니까.”<sup>25)</sup>

만약 테리가 ‘나’가 아니었다면 여름은 다시는 초기화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갖지 못했을 수 있다. 여름의 우주에도 테리만큼 건강하고 평화로운 할머니들은 많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바로 그 할머니가 또 다른 ‘나’인 테리이기 때문에 여름은 자기를 믿고 자기 앞에 닥칠 모든 삶의 순간을 수용하기로 한다.

지금은 서로를 믿어 보는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한 손씩 내밀어 우리의

---

25) 하유지, 『너의 우주는 곧 나의 우주』, (주)자음과모음, 2023, 219-220쪽.

초기화 버튼을 함께 잡은 다음 들어 올렸다. 혼자 하려던 일, 혼자 해서 실패한 일을 테리와 함께하려니 생각보다 든든했다. 그동안 고민하며 갈팡질팡 했는데 지금은 단잠에서 깨어나 켜는 기지개처럼 개운하고 상쾌했다. 짧은 시간이지만 테리한테서 미래의 내 모습을 엿보았다. 앞으로 인생에서 맞이할 선택과 고민의 순간마다 테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궁리해 볼 것 같다.<sup>26)</sup>

『사실은, 단 한 사람이면 되었다』도 자기돌봄 과정에서 자기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 주인공 은아는 어릴 때부터 반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언니와 외모, 성격 면에서 비교당하며 자존감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이다. 게다가 자기를 편견 없이 대해준 유일한 친구 신화가 교통사고로 죽어서 그에 대한 트라우마도 심하다. 이 경우는 빅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다. 대상 작품들에서 이 소설의 주인공은 트라우마 정도가 가장 심하다. 이 소설의 중심갈등은 그런 은아의 자기혐오와 자기돌봄 욕망 사이의 내적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은아의 반에 교생 선생님이 온 ‘미래의 나’가 조력자로 기능한다. 교생 선생님은 점심시간에 혼자 밥 먹는 은아 자리에 가서 함께 먹고, 비오는 날 우산 없는 은아를 집까지 차로 데려다주기도 하며 외롭고 힘든 은아 곁을 지켜준다. 은아는 예쁘고 공부도 잘한 교생 선생님이 미래에서 온 자기 자신이라는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를 깊이 신뢰한다. 신화가 죽고 교생 선생님도 자기 세계로 돌아갈 때, 은아는 절망하며 교생 선생님을 붙잡는다.

“가지 마세요. 전, 선생님마저 없으면 전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신화가 열심히 살아보고 싶어 했던 세상이야. 그렇게 말하면 신화가

---

26) 위의 책, 224쪽.



슬퍼할 거야.” 은아의 눈에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딱 한 사람이면 됐는데……. 그냥 날 이해해 주는 딱 한 사람이면 됐는데, 그 사람마저 잃었어요. 선생님이라도 제 곁에 있어 주시면…….” “괜찮아. 너의 한 사람은 너야.”… (중략)… “내가 말했지? 너는 나고, 나는 너라고.” 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래의 나를 살리는 건 현재를 살고 있는 너야. 사랑하는 한 명의 친구를 잃었지만, 그래도 그 친구 뒤편까지 힘을 내어 살아가는 너. 너 스스로 열심히 살았기에 미래의 내가 멋진 인생을 얻었던 거야. 너의 한 사람은 그래서 너야. 네가 하나의 존재로서 자존감을 갖고 변화하려고 노력했어. 그런 네가 없었다면 미래의 나도 없겠지. 지금의 네가 미래의 나를 구원하는 거야.”<sup>27)</sup>

교생 선생님은 “너의 한 사람은 너”라며 “미래의 나를 살리는 건 현재를 살고 있는 너”라고 일러준다. 그리고 “네가 자존감을 갖고 변화하려고 노력”해서 미래의 내가 존재할 수 있음에 감사해한다. 다시 말해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내가 자존감을 갖고 잘 살아온 결과로서, 앞날의 자기 삶에 대한 보증 수표이다. 그래서 은아는 미래의 나를 믿고 “그렇게요. 자존감을 갖고, 나를 좋아하면서 살아갈게요.”라고 약속한다. 그런데 후반부에서 보이는 사건의 진상은 이 소설을 온전한 자기돌봄 이야기로 보기 어렵게 한다.

교생 선생님이 실은 ‘미래의 나’가 아니라 ‘미래의 언니’였기 때문이다. 산에서 미끄러져 죽을 위기에 처한 동생을 구하기 위해 은아의 언니 은진이 과거로 돌아갔던 것이다. 또 언니가 저승사자 할머니의 능력으로 과거로 갔다는 설정은 전혀 SF적이지 않다. 그럼에도 은아가 ‘미래의 나’에 대한 신뢰로 자존감을 회복했다는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은아의 언니, 은진은 다시 현재로 돌아왔지만 은아에게 교생 선생님이 실은 자기였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 그러므로 은아 초점에서 이 이야기는 끝까지 다중우주적 상상에 기반한 자기돌봄 서사이고, 작품의 중심갈등이나 주제를 생

27) 정해연, 『사실은, 단 한 사람이면 되었다』, 북멘토, 2023, 106-107쪽.

각할 때 후반부 이야기는 사족으로 보인다.

요컨대 두 작품에서 자기돌봄 서사는 ‘미래의 나’와 조우하며 ‘현재의 나’를 괴롭히는 생각을 멈추고, ‘미래의 나’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미래의 나’와 협력하며 ‘현재의 나’를 포용하게 한다. 이때 다중우주적 상상은 자기 삶을 먼 미래까지 확장시켜 미래의 나를 구체화하고, 막연하고 불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게 하는 데 일조한다.

#### 4. 결론

이 연구는 최근 청소년 SF 중 다중우주적 상상에 기반한 자기돌봄 서사에 주목하여 인물과 중심갈등을 분석하며 그 양상을 살펴보았다. 대상 작품들은 자기를 괴롭히는 생각들에 사로잡힌 여성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들이 다른 우주의 ‘나’를 만나며 겪는 자기돌봄 사건을 다루고 있다. 자기돌봄 과정에 이르는 여정은 비슷하지만 나와 맺는 관계의 양상은 다르다. 『다꾸의 날』과 『붉은 실 끝의 아이들』은 ‘부정적 자아’와의 대결을 통해 억압했던 부정적 감정을 직면하며 자기를 통찰하게 되고, 『너의 우주는 곧 나의 우주』와 『사실은, 단 한 사람이면 되었다』는 ‘미래의 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의 나’와 협력하며, 미덥지 않은 ‘현재의 나’를 포용할 용기를 갖게 된다.

최근 청소년 소설에서 자기돌봄 서사가 증가하는 이유는 일상의 스톱트라우마가 청소년들을 압박하며 청소년들이 부정적 자아를 갖게 되는 현실과 관련 있어 보인다. 대상 작품들에선 특히 자기 상처에 대한 외면,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행동, 문제 상황 앞에서 도망치는 방

어기제들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때 SF의 다중우주적 상상은 ‘나’와 ‘나의 세계’를 내면에 가두지 않고, 다른 개체와 우주로 형상화하여 정적이고 관념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자기돌봄 사건을 흥미진진하고 역동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 또 ‘나’를 보다 입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상상력을 제공한다.

이러한 작품들은 SF가 기술문명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세계관의 탐구나 미래 사회를 상징하는 장치로서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대상 작품들이 다중우주적 상상을 인연 설화나 저승사자 모티프 등과 같이 신화적 상상과 연결시키는 현상은 작품의 SF적 성격을 약화시킨다. 최근 청소년 SF에서 이러한 판타지적 설정이 늘어가는 경향이 있는 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고호관, 『30세기 소년소녀』, 북트리거, 2023.  
문이소, 『다꾸의 날』, 씨드북, 2023.  
전삼혜, 『붉은 실 끝의 아이들』, 퍼플레인, 2022.  
하유지, 『너의 우주는 곧 나의 우주』, (주)자음과모음, 2023.  
정해연, 『사실은, 단 한 사람이면 되었다』, 북멘토, 2023.  
이현, 『영두의 우연한 현실』, 사계절, 2009.

### 2. 논문과 단행본

- 김건형, 「한국 게이 로맨스 장르의 서사구조 - 남성 청년의 돌봄 친밀성과 게이라는 남성 젠더의 창안」, 『대중서사연구』 제28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22, 95-137쪽.  
김성희, 「염상섭 『취우』의 윤리적 독해」,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98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23, 281-306쪽.  
김유진, 「최근 SF 어린이청소년문학의 여성주의적 분석」,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22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8, 203-228쪽.  
김은정, 「조경란 치매 서사에 나타난 이야기 정체성」, 『한국문학논총』 제85집, 한국문학학회, 2020, 321-356쪽.  
김젤마, 「포스트휴먼 시대의 과학자-엄마 되기 - SF 아동청소년문학에 나타난 모성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5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1, 102-123쪽.  
박성진, 「2010년대 SF 청소년소설 연구: 이인(異人)·가상생물 캐릭터와 현실 청소년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양돈규, 『심리학사전』, 박영사, 2017.  
양태영, 「2010년대 한국 어린이·청소년 SF 연구: 포스트휴먼적 주인공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엄미옥, 「고령화사회의 문학 - '치매'를 다룬 소설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

24권 1호, 대중서사학회, 2018, 285-321쪽.

윤혜정, 『목소리의 공명을 통한 여성서사의 확장 - 최은영의 『밝은 밤』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75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22, 61-90쪽.

정윤영, 『『프린세스 바리』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돌봄 연구 - ‘확장된 돌봄’으로서의 효과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연구』 제41호,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2023, 215-236쪽.

최배은, 『한국 아동청소년 과학소설의 디스토피아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제76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22, 143-175쪽.

최시한, 『스토리텔링, 어떻게 할 것인가』, 문학과지성사, 2018.

최애순, 『초창기 SF 아동청소년문학의 전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21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7, 41-88쪽.

일자 샌드, 『서툰 마음』, 김유미 역, 다산지식하우스, 2017.

멕 애럴, 『삶의 면역을 기르는 자기돌봄의 심리학 스톨 트라우마』, 박슬라 역, 김현수 감수, 깔리온, 2023.

타라 블랙, 『자기돌봄』, 이재석 역, 김선경 역음, 생각정원, 2013.

토비아스 휘르터·막스 라우너, 『평행우주라는 미친 생각은 어떻게 상식이 되었는가』, 김희상 역, 알마, 2013.

## Abstract

### A Study on Self-Care Narrative of Recent Young Adult SF - Centering on Multiverse Imagination

Choi, Bae-eun(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focused on the increase in self-care narratives based on multiverse imagination in children & young adult SF, examining the pattern and considering its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The target works deal with self-care events that they go through while meeting 'themselves' in another universe, featuring female adolescents who are obsessed with thoughts that bother them. The journey to the self-care process is similar, but the aspect of the relationship with themselves is different. In 『Day of Daku』 and 『Children at the End of Red Thread』 they recognize themselves through a confrontation with "I" that bothers myself, and they have the courage to embrace themselves based on their confidence in themselves in the future, as you can see from the expressions like 『Your universe is my universe』 and 『In fact, only one person was enough』. The reason for the increase in self-care narratives in recent children & young adult novels seems to be related to the reality that everyday small trauma pressures adolescents and makes them have negative egos. In this situation, SF's multiverse imagination does not lock "me" and "my world" inside, but rather contributes to making self-care events exciting and dynamic by embodying another individual and universe, otherwise, they could be made static and ideological. It also provides the imagination enabling a more three-dimensional and objective insight into "I".

These works suggest that SF can be used as a more diverse storytelling technique as well as a device that symbolizes a future society. However, there is a limitation that they represent the problems with teenagers superficially, and

narrow the multiverse imagination to something more fantastic than scientific by solving situations difficult to explain scientifically with fantastic motifs.

(Keywords: young adult SF, multiverse, self-care narrative, female youth, negative ego, small trauma)

■ 논문투고일 : 2024년 1월 12일

논문심사일 : 2024년 2월 14일

수정완료일 : 2024년 2월 18일

게재확정일 : 2024년 2월 19일